

<장생포문화창고 3월을 맞아 다채로운 전시 잇따라 운영>

△ 장생포문화창고 갤러리 B_송주웅작가 <삶의 풍경>

복합문화공간 장생포문화창고((재)고래문화재단 운영)는 3월 봄을 맞아 다채로운 전시를 마련한다. 먼저 울산에서 오랜 작업 활동을 하는 송주웅의 전시를 준비했다. 울산작가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송주웅의 전시 <삶의 풍경>을 오는 3.1. (토) ~ 3. 30.(일)까지 3층 갤러리B에서 오픈한다.

송주웅의 <삶의 풍경>은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의 자본에 숨겨지고 가려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누구나 예외 없이 도착하는 늙음과 죽음, 그러나 그 속에 오롯이 담긴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삶을 다룬다. 이렇게 송 작가가 오랫동안 끈질기게 천착하는 주제는 인간이다. 인간군상에서도 화려한 조명을 받는 인간이 아닌 그늘 속의 인간에 애정을 가진다. 그 속에 자신도 포함시켜 집요하다.

그의 작업 방법은 물감을 두텁게 덧칠하는 임파스토와 브러쉬 스트로크 기법을 병행하여, 늙음과 그들의 거친 삶을 질감으로 보여준다. 늙어가고 소외된 존재를 담아내는 작업은 결국 인간의 보편성에 호소한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스러져 가는 청춘을 붙잡고 싶지만, 주름과 쇠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인간의 감정에 호소한다. 울산에서 오랫동안 한 주제로 천착하며 붓질하는 예술가를 꼭 기억하고 싶기에 여기 소개한다.

△ 장생포문화창고 4층 특별전시관_윤기원 초대전 <예술가의 초상>

두 번째 작가는 팝아트 계열의 강렬한 색채와 간결한 선으로 색면 작업을 하는 윤기원이다. 장생포 문화창고 4층 특별전시관에서 3. 1.(토) ~ 4. 13.(일)까지 <예술가의 초상>이란 타이틀로 전시를 운영한다. 윤기원의 전시는 30여 명의 주변 예술가와 인연을 맺으며 영감받아 그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다. 작품마다 부착된 QR코드를 연결하면 영상을 통해 작가와 인터뷰한 예술가를 만날 수도 있다.

윤기원의 작품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화가의 얼굴이다. 그가 다루는 소재는 제복이나 넥타이가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다. 순박하고, 눈이 매섭지 않고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의 얼굴이지만, 얼굴은 사람의 속내와 본질을 감출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나는 보지만 너는 날 볼 수 없다는 선글라스의 정치학은 더 많이 감추는 얼굴이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고 권력을 강화하듯, 얼굴은 다양한 개성을 상징한다.

장생포문화창고 전시기획자 한승태는 “얼굴은 한 사람의 이력서이며 자서전이고,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다는 말이 있다며, 얼굴은 보이는 것이고, 그것으로 나와 타인은 소통한다. 타인의 표정 이면에 숨은 욕망, 내적 기질, 외상성(外傷性) 기억들, 인생 역정을 드러

낸다면 각자의 삶을 돌아보길 권했다. 니콜 아브릴이 '얼굴은 인간과 더불어 태어났다.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는 인간의 모순 덕분에 얼굴은 본질과 표상이 되었다. 말하자면 겉과 속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체가 되었다.'라고 간파하듯이. 문의)052-226-0015

※ 홍보물 붙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052-226-001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19.
